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3차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일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12일 오후 7시(한국시각 13일 새벽 1시) 카타르 도하 아스파이어 경기장에서 현지적응 훈련을 시작하고 있다. 대표팀은 14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각 15일 새벽 1시) 카타르와 평가전을 가진 후 19일 오후(한국시각 20일 새벽 1시35분) 리야드에서 사우디와 결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사우디전 해법' 찾는다

허정무호가 중동 원정의 첫 기착지인 카타르 도하에서 본격 담금질을 시작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3일(한국시각) 새벽 1시(현지시각 12일 오후 7시) 도하 외곽의 아스파이어돔 옆 보조구장에서 첫날 훈련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20일 새벽 1시35분)의 모의고사인 카타르와 평가전(한국시각 15일 새벽 1시)을 사흘 앞둔 이날 훈련은 러닝과 스트레칭, 패스, 헤딩 연습에 이어 수비 조직력을 집중적으로 접검하는 전술훈련 순으로 진행했다.

골키퍼 이문재를 포함한 주전팀 10명은 주황색 조끼를 입고 8명으로 구성된 상대팀과 실전 상황을 가상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긴장감을 높였다.

주전팀에는 포백 수비라인에 왼쪽부터 김치우(서울)-강민수(전북)-조용형(제주)-최효진(포항)이 늘어서고 중앙 미드필더에 김

정우(성남), 기성용(서울), 좌우 날개에 염기훈(울산), 이청용(서울)이 포진했다.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장신 스트라이커 정성훈(부산)이 섰다.

이들 대부분이 카타르와 평가전 때 선발 출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A매치 두 경기 연속 두 골을 넣은 이근호(대구)는 이원이 부족해 상대팀에 배치됐지만 4-4-2 포메이션을 짠다면 정성훈과 함께 투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허정무 감독은 훈련 중 좌우 왕백인 김치우와 최효진에게 철벽 방어 임무를 맡겼고 중원을 책임지는 김정우와 기성용에게도 강한 압박과 적극적인 수비 기담을 주문했다.

카타르와 평가전에는 박지성(맨체스터 유

나이티드) 등 해외와 5명이 불참하기 때문

에 전체 엔트리 25명 중 국내 K-리거 20명

로 보인다.

허정무 감독은 훈련 중 좌우 왕백인 김치우와 최효진에게 철벽 방어 임무를 맡겼고 중원을 책임지는 김정우와 기성용에게도 강한 압박과 적극적인 수비 기담을 주문했다.

카타르와 평가전에는 박지성(맨체스터 유

나이티드) 등 해외와 5명이 불참하기 때문

에 전체 엔트리 25명 중 국내 K-리거 20명

카타르 평가전 베스트



으로 베스트 11을 꾸린다.

허 감독은 “베스트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볼 수밖에 없다. 카타르와 평가전에 골고루 기용해 컨디션을 점검하겠다. 전체가 주전이라는 생각으로 뛰어야 한다”며 대표팀 선수 간 치열한 생존 경쟁을 예고했다.

그는 또 “이운재도 항상 후배와 경쟁해야 하고 주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마음으

로 해주는 게 고맙다. 조원희도 목 통증이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고 부상 선수가 없이 컨디션이 좋은 상태다. 카타르와 평가전은 적응하는 단계일 뿐 우리의 목표는 사우디와 최종 예선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지성이 칼링컵에서 풀게임을 뛰었지만 김동진과 오범석은 최근 경기 못 뛰었고 부상까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염기훈이 정상 컨디션을 찾았고 박주영까지 가세하는 데다 기준 정성훈, 이근호에 김형범, 하대성까지 있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좋은 경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기성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저녁에 바람이 불고 덥지 않아 날씨, 잔디 모두 좋다. 컨디션도 괜찮아 카타르와 평가전에서 적응력을 높인 뒤 사우디아라비아와 일전에서 꼭 승점 3점을 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사우디 좌우 공격 위협적...미드필더 강한 압박 필요”

허정무 감독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최종 예선 2 차전에서 4-1로 놀랐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달립니다. 체력과 스피드가 좋은 데다 특히 좌우 측면 공격이 위협적입니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은 13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3차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일전(20일 새벽 1시35분)을 앞두고 도하에서 첫 훈련을 지휘한 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허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 점검자 현지에 급파된 정해성 수석코치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2일 밤 홈경기로 치러진 바레인과 평가전에서 4-0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었다.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더욱 긴장의 끈을 조일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은 1989년 10월 25일 이탈리아 월드컵 예선 2-0 승리 이후 19년 동안 6경기 연속 무승(3무3패) 행진을 벌이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역대 전적 3승6무5패로 열세에 놓여 있다.

최종 예선 B조에서 1승1무로 선두인 한국이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꿈을 이루려면 사우디아라비아전 원정 승리가 필요하지만 만만찮은 승부를 예고한 셈이다.

애초 사우디아라비아의 간판 공격수인 애세르 알 카타니(26·알 힐랄)가 부상으로 한국전 출전이 불투명해지면서 허정무호로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

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혼자 두 골을 넣은 나이프 하자지의 활약으로 최종 예선 A조에 속해 있는 바레인을 4-0으로 대파했다. 지난 9일 태국과 평가전 1-0 승리에 이은 가쁜 기세다.

카타르와 평가전(15일 새벽 1시)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허정무호로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허정무 감독은 “사우디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19년간 이어왔던 무승 징크스를 깰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특히 좌우 측면 돌파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수비진과 미드필더에게도 강한 압박과 적극적인 방어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北-美 '정상 다툼'

U-17 여자축구월드컵

북한과 미국이 2008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축구월드컵 결승에 올라 초대 월드컵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북한은 13일(이하 한국시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캐럴리자스 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4강 첫 경기에서 잉글랜드를 2-1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전반 19분 허은별의 선제골로 앞서 나간 북한은 44분 전명화의 추가골로 한 걸음 더 달아난 채 전반을 마쳤다. 북한은 후반 30분 잉글랜드 레베카 제인에게 만회골을 내줘 풀기기도 했지만 리드를 빼앗기지는 않았다.

한국의 차성미 주심이 휴식을 분 준결승 두 번째 경기에서는 여자축구 세계 최강 미국이 독일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8강에서 한국은 4-2로 꺾은 미국은 전반 6분 독일 알렉산드리아 포포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했지만 후반 18분 비키 디마르티노, 36분 코트니 벌루의 연속골로 전세를 뒤집는 저력을 보여줬다.

마라도나 아르헨티나 감독

축구협과 갈등...사퇴 가능성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뽑힌 디에고 마라도나(48)가 코칭스태프 구성을 놓고 아르헨티나축구협회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감독직에서 도중하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라도나는 19일로 예정된 스코틀랜드와 평가전을 앞두고 보카 주니어스에서 한 솔발을 벗었던 오스카루게리(46)를 코치로 지목했지만 훌리오 그론도나(77) 축구협회장이 반대하고 나섰다.

축구협회 한 관계자는 “루게리와 그론도나 회장이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라며 “그론도나 회장이 ‘루게리를 보기도 싫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트리플 악셀 한번만”

‘피겨퀸’ 김연아 라이벌

일본 아사다 우승 자신



“집중해서 연습했다. 마음의 준비를 끝냈다.”

피겨퀸 김연아(18·군포 수리고)의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사진)가 자신의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첫 대회를 앞두고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다.

아사는 13일(한국시간) 새벽 2008~2009 ISU 시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13~16일·프랑스 파리) 출전을 위해 파리에 도착한 직후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집중을 해서 훈련을 해왔다. 마음의 준비는 잘 돼 있다”고 경기에 나서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라파엘 아루투니안 코치와 결별하고 러시아의 타티아나 타리소바 코치와 호흡을 맞춰온 아사다는 이번 대회 직전까지 러시아에서 훈련을 해왔다.

아사다는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신의 장기였던 트리플 악셀(공중 3회반)을 프리스케이팅에서 두 차례 포함하겠다고 공언해 눈길을 끌어왔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충실히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라며 트리플 악셀을 한 번 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사다는 4차 대회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치러지는 그랑프리 6차 대회 ‘NHK 트로피’에 출전한다. NHK 트로피에는 한국을 대표해 김나영(18·연수여고)도 출전한다.

첼시, 2부 리그 번리에 물었다

프리미어리그 칼링컵 4R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첼시가 리그 컵대회인 칼링컵에서 2부리그(챔피언십) 팀 번리에 멀미를 잡혔다.

번리는 1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런던 스텁포드브리지에서 열린 2008~2009 칼링컵 4라운드(16강전) 원정에서 1-1로 경기를 마친 뒤 승부차기 끝에 첼시를 5-4로 물리쳤다.

이로써 번리는 프리미어리그 선두 첼시를 잡는 이번을 연출, 극적으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2부리그 5위를 달리는 번리는 전반 27분 첼시 간판 공격수 디니에 드로그바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4분 아데 아킨비이가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두 팀은 연장전까지 무승부가 돼 승부차기에 들어갔고 번리가 막판에 웃었다. 번리는 승부차기 4-4에서 마지막 키커인 마이클 더프가 침착하게 킥을 성공한 반면 첼시는 존 오비 미켈이 실축해 무릎을 끊었다.

토트넘 헛스퍼도 홈 경기에서 ‘빅4’ 리버풀을 4-2로 완파하고 칼링컵 8강에 합류했다.